



볼트, 100m 올림픽 3연패 영광의 순간 자메이카의 '번개' 우사인 볼트(왼쪽 사진 왼쪽 2번째)가 15일(한국시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경쟁자인 미국의 저스틴 게이틀린(왼쪽 사진 오른쪽 끝)을 따돌리고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9초81의 우승 기록이 새겨진 전광판 옆에 앉아 기쁨을 즐기는 볼트의 모습. 리우데자네이루 | AP신화화사



“네덜란드, 양 날개 꺾어라”

여자배구 오늘 오후 10시 8강전

슬로베니아·부이스 161득점 '공격의 키'
네덜란드 리시브 약점 집중공략 필요

이정철 감독(IBK기업은행)이 이끄는 여자배구대표팀이 1차 목표를 달성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조별리그 A조 3위(3승2패)로 8강 토너먼트에 올랐다. 애초 승리 상대로 점찍었던 일본, 아르헨티나, 카메룬을 모두 잡았다. 한국의 8강전 상대는 네덜란드다. 16일 오후 10시(한국시간) 마라카나지뉴에서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벌인다. 네덜란드의 세계랭킹은 11위로 한국(9위)보다 2계단 낮지만,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B조 2위(4승1패)로 8강에 합류했다. 조별리그 막판 3경기에서 이탈리아, 푸에르토리코, 세르비아를 연파하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슬로베니아·부이스, 양 날개를 뽐내라!

특히 양 날개 공격수들의 화력이 돋보인다. 라이트 로베코 슬로베니아는 조별리그에서 득점 1위(100득점)를 차지했다. 슬로베니아는 5월 15일 도쿄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최종예선 한국전에서 20득점을 기록했다. 총 61점을 올린 레프트 앤 부이스도 슬로베니아와 환상적 호흡을 자랑한다. 블로킹 2위(세트당 0.86)를 차지한 센터 로빈 드 크루이프도 경계대상이다. 3명 모두 터키리그의 강팀 바르프랑크 소속이다.

한국은 네덜란드와 역대전적에서 10승 6패로 앞서있다. 지난 올림픽 최종예선에

구분	시간	팀	순위
17일 10:15	19일 01:00	브라질	A조 1위
16일 22:00	19일 01:00	중국	B조 4위
17일 06:00	19일 10:15	러시아	A조 2위
17일 02:00	19일 10:15	세르비아	B조 3위
17일 06:00	19일 10:15	일본	A조 4위
17일 02:00	19일 10:15	미국	B조 1위

최종예선 네덜란드전 한국 주요 선수 기록

선수명	득점	공격	블로킹	서브	공격성공률
김연경	24	20	0	4	41.67%
박정아	13	11	0	2	37.93%
김희진	11	9	1	1	33.33%
양효진	7	5	2	0	38.46%
김수지	7	3	1	3	50%

선 세트스코어 3-0으로 이겼고, 네덜란드 전지훈련 기간 중 치른 평가전에선 1승 1패를 기록했다. 최종예선에서 거둔 승리는 한국선수들이 자신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서브에서 11-0으로 네덜란드를 압도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네덜란드의 리시브 정확도는 11.27%였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속공이 줄어들고, 그만큼 날개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비와 블로킹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또 하나의 복병, 귀테티 감독

또 하나의 복병은 조반니 귀테티 네덜란드 감독이다. 귀테티 감독은 바르프랑크의 사령탑이다. 또 바르프랑크는 김연경의 소속팀인 페네르바체와 라이벌 관계다. 오랫동안 김연경의 플레이를 관찰한 귀테티 감독이 분석에 자신

한국vs네덜란드 최종예선 분석 (5월 15일 도쿄)

구분	한국	네덜란드
공격	49	48
블로킹	4	4
서브	11	0
범실	18	16
리시브 정확도	33.82%	11.27%
최다득점자	김연경(24)	슬로베니아(20)

감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은 최종예선 당시 김연경의 '원맨쇼'가 아닌 다양한 공격 옵션과 강력한 서브를 앞세워 네덜란드를 완파했다. 김연경이 24점을 뽐냈고, 박정아와 김희진(이상 IBK기업은행)도 각각 13득점과 11득점을 기록했다. 이번 올림픽에선 양효진(현대건설)과 이재영(흥국생명)의 공격력이 살아났다. 그만큼 공격 옵션이 다양해졌다. "김연경에 의존하는 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이정철 감독의 색깔이 나타나고 있다.

여자배구대표팀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다. 1976몬트리올올림픽 이후 40년만의 메달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네덜란드를 잡아야 한다. 이제는 매 경기가 별 관계다. 오랫동안 김연경의 플레이를 관찰한 귀테티 감독이 분석에 자신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올림픽 스타디움은 볼트의 모노드라마 세트장

육상 100m 취재 열기 가장 뜨거워
1000여명 기자, 일거수일투족 담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현장에서 보도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모인 5000여명의 취재진이 활동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미디어센터(MPO). 각자의 노트북으로 업무에 열중하던 이들이 현지시간 14일 오후 6시 무렵이 되자 재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행선지는 제각각이었지만, 그 중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올림픽 스타디움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날 이곳에서 '하계올림픽의 꽃'이자 하이라이트인 육상 주요 경기들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테극공사들이 사상 첫 올림픽 4관왕의 위업을 세운 양궁장이 있는 삼보드로모 일대에서 오전 여자마라톤이 펼쳐졌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와 저스틴 게이틀린(34·미국)이 겨룬 남자 100m 결승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8시35분 남자 높이뛰기 예선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주요 레이스를 보려 한 기자들은 가장 구석, 그것도 맨 꼭대기 층에 자리 잡아야 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디어센터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셔틀버스는 올림픽 특별차선에서 운행된다. 그런데 리우올림픽의 경기장은 서로 거리가 멀어 하루 2~3곳씩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욕심을 내 많은 경기장을 찾고 싶어도 미디어센터에서 찍고 움직이다보면 동선이 꼬이기 일쑤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거리도 멀고 입지가 좋지 않은 데다,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올림픽 스타디움이 특히 그랬다.

대회 개막식이 열렸고, 폐막식이 진행될 마라카나 스타디움과 인접한 올림픽 스타디움은 리우올림픽 경기장 가운데 가장 빠른 2007년 팬아메리카대회를 위해 설립됐는데, 약 5만6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관중석은 오후 6시 무렵부터 이미 만원이었고, 1000여석이 마련된 기자석도 일찍 자리를 잡은 이들로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심지어 몇몇은 오전부터 주변을 관광하거나 배회하다 경기장 게이트가 갓 열린 오후 4시에 맞춰 입장했다는 후문. 뒤통을 두들긴 기자들은 가장 구석, 그것도 맨 꼭대기 층에 자리 잡아야 했다.

물론 고생한 보람은 충분했다. 오후 10시25분 드디어 스타트 총성이 울린 남자 100m 결승은 기대대로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모노드라마와 같았다. 역시 유일한 주인공은 볼트, 조연은 게이틀린이었다.

예선과 준결승을 통과한 8명을 장내アナ운서가 소개하고, 모두의 심박수를 높이는 빠른 비트의 음악이 흐르면서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리고는 눈 한 번 깜짝이면 흐르는 10초에 모든 승부가 결정됐다. 이어진 20여분간의 긴 세리머니와 떠들썩한 시상식, 미안한 표현이지만, 다른 세부종목들은 남자 100m를 위한 양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실제로도 남자 100m 결승이 끝나자 관중의 8할이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러나 기자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식 기자회견장과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은 볼트를 직접 보려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관중과 섞여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데 30분, 셔틀버스 대기 40분, 미디어센터 이동 30분... 1등부터 꼴찌까지 10초 만에 갈린 경기를 보기 위해 투자인 긴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았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펠프스, 올림픽 최초 3종목 4연패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가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육상 남자 100m에서 우승해 사상 처음으로 이 종목 올림픽 3연패에 성공했다. 다른 종목에도 올림픽 연속제패의 기쁨을 맛봤던 역사적 인물들이 제법 있다.

2004아테네대회 금메달 6개를 시작으로 이번 올림픽에서도 5관왕에 오르며 개인통산 23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마이클 펄프스(31·미국)는 개인혼영 200m와 혼계영 400m, 계영 800m 등 무려 3종목에 걸쳐 올림픽 4연패를 이뤘다.

올림픽 수영 4연패 역시 사상 최하다. '한국사격의 자랑' 진종오(37·kt)는 리우에서 남자 50m 권총 정상에 오르며 세계사격 역사상 첫 올림픽 개인종목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미국의 '워킹맘' 크리스틴 암스트롱(43)도 여자 도로사이클에서 시상대 맨 위에 서며 사이클 사상 첫 올림픽 3연패의 주인공이 됐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박람회 / 한글인터넷 주소: 동아전람

관람안내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DONG-A Construction & Interior EXPO

01

기간 8월 15일~8월 18일(4일간)
장소 SETEC(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앞)
※지하철 출구는 하나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주최 동아전람
www.dong-afairs.co.kr

전시품목 건축자재, 홈인테리어, 전원주택, 건축정보, 가구, 건축·주택관련제품

관람문의 동아전람
TEL. 02)780-0366

02

▶ 주차안내 전시장 주변이 매우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이용시 주차를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하시고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탄천주차장과 전시장간 (SETEC) 왕복 무료 셔틀버스 운행
- 송파구 탄천주차장 네비게이션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082-1 또는 잠실 자동차극장

▶ 버스 사당역·남부터미널: 4319 / 양재역: 917
수서역: 401 / 송파역: 3012 / 성남·분당: 4419, 9407
군포: 917 / 광교: 6900 / 인천공항: 6009

▶ 지하철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앞 (출구는 하나)

03

▶ 오시는길 (SETEC) - 네비게이션 주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